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심포지엄 서울 대서 열려

1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축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등록 : 2015-11-18 18:52 수정 : 2015-11-18 17:55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소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일시 2015년 11월 19일 (목) 09:40-17:30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축관(140-2동) 4층 국제회의실

언어 한국어

문의 02-880-8503, ijs@snu.ac.kr

09:40-10:00 개회식
개회사 |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축사 |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10:00-11:50 제1세션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는가?**

사회 | 김성한 (고려대 일본연구소장)

발표 |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 임재환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일본의 안보위협인식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토론 | 전재성 (서울대 교수),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2:00-13:30 오찬 및 휴식

13:30-15:20 제2세션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회 |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발표 | 박영준 (국방대 교수)

"안보법제의 통합적 이해: 국가안보전략, 미일가이드라인,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새롭게 반영된 방위조치"

토론 | 남창희 (인하대 교수),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소장)

15:20-15:40 커피브레이크

15:40-17:30 제3세션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회 |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발표 |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소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재구성"

토론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IJS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Focusnews

(서울=포커스뉴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축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 개회식에서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소 1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김성한 고려대 일민연구원장의 진행 아래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일본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해당 세션에는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임재환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일본의 안보위협인식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도 진행될 계획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열리는 제2세션은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영준 국방대 교수와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박 교수와 송 연구위원은 각각 '안보법제의 통합적 이해: 국가안보전략, 미일가이드라인,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새롭게 반영된 방위조치'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와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이 제2세션의 토론을 장식한다.

제3세션은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이고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재구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제3세션은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

취소